

할인판매 시비와 출판계의 '급소'

출판계와 서점가에서 현재의 정가판매제도를 처음 시도하기 시작한 것이 1978년, 그러니까 어림잡아 30대 이후의 나이라면 대개들 '책값 흥정'의 기억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문화상품이라고 남대문시장에서 옷 한벌 살 때처럼 함부로 '후려치지는' 못했지만, 한참을 미적거린 끝에 "학생은 단골이니까"라는 식의 꼬리를 단 서점주인의 생색을 선심으로 이해하며 괜히 흡족해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을 '좋았던 往年'쯤으로 그리워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정가판매는 책의 문화적 가치와 품위를 지키려는 출판인들의 노력이 어렵사리 일궈내고 정착시킨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과 '중앙회'라는 권위적 수사를 앞뒤에 거느린,

한 판매회사의 도서할인판매 광고가 일으킨 최근의 파문을 보면서 무언지 떨떠름하고 불유쾌한 기분만은 떨칠 수가 없다.

우선, 판매업자들의 도매기구도 조합체도 아닌 일개 판매회사가 정가를 외면한 할인판매를, 그것도 대대적인 광고공세를 통해 계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의 정가체제와 유통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게다가 점입가경인 것은, 이에 대해 출판계가 독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상호의 변경과 할인판매의 중지를 요구하면서부터이다.

'한국도서출판중앙회'측이 출판계 내부의 '이중정가 운용 및 그를 이용한 사기성 할인판매'를 역시 광고로 폭로, 그같은 요구를 역공으로 맞받

아침으로써 일전불사의 태세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구체적인 도서명까지 적시한 그런 폭로의 사실여부가 아니다. 오히려, 그같이 공공연한 도전에 대해 출판계가 과연 스스로의 정직성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당당함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가 보다 근원적인 문제제기가 된다. 문화사업의 '羊頭' 속에 가리고 싶은 '狗肉'은 없느냐는 것이다.

이 질문에 떳떳할 수 없다면 출판계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내로라하는 대출판사가 지난해의 재고분 참고서를 신간인양 위장출고한 것 같은 물의가 계속 번지는 한, 일개 판매사의 도전 하나 제때에 물리칠 만한 의연함을 출판계에서 기대하기란 힘들다. 그 도전은 출판계의 급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급소는 아예 없는 것이 가장 좋다.

- 강철주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 38 호 / 1989년 4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鐵肅
 편집인 — 李起雄
 인쇄인 — 李煥秀
 편집주간 — 李勝羽
 편집차장 — 康鐵柱
 기자 — 吳愛里 南眞祐 金芝媛
 디자인 — 尹貞子

포토디렉터 — 朱明德
 사진 — 全惠敬

업무·광고 — 梁承杓 崔允源
 洪先基 金收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광일사식

출판저널 — 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康賢斗 康淑彬 權德周 權宰珉
- 權五聖 金炳翼 金聖坤 金容雲
- 金禹昌 金仁會 金治洙 盧命完
- 潘星完 邊衡尹 徐沈善 徐顯吳
- 成完慶 宋相庸 慎錫廈 安秉永
- 安雅濤 吳光洙 劉載天 陸明心
- 尹錫範 李康洙 李康淑 李璟薰
- 李光周 李萬烈 李明賢 李相日
- 李元馥 李重漢 李姬載 張會翼
- 鄭用琢 鄭雲映 鄭元植 鄭鐵弘
- 鄭丙圭 曹大欽 趙玉羅 陳德奎
- 車河淳 崔成眞 崔元植 崔載賢
- 崔鍾車 韓相震 韓勝憲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20회분을 계속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20회분 단위로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 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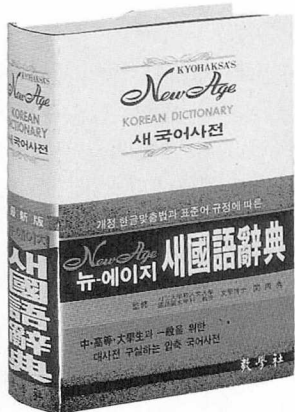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4월15일까지 「출판저널」 독자퀴즈 담당자 앞(10-190 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 내)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40호(4월20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중 5명을 추첨, 敎學社에서 펴낸 「뉴에이지 새 國語辭典」(정가 9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제1

松江 鄭澈(1536-1593)은 조선조 중기의 대표적인 시인이다. 임금이 대한 그리움을 읊은 그의 작품은 다음 중 어떤 것인가?

1. 思美人曲
2. 關東別曲

3. 山別曲

문제2

청석골의 채영신이라는 신여성과 한국리의 박동혁을 주인공으로 하여, 농촌계몽운동에 나선 젊은이들의 슬픈 사랑과 민족의식을 담은 소설은 무엇인가.

1. 흙
2. 상록수
3. 탁류

문제3

괴테의 대표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샬로테라는 여성과 작가와의 사랑이 계기가 되어 탄생됐다. 그렇다면 베아트리체라는 여성을 사랑하여 사랑의 시집 「신생」을 썼고 최대결작 「신곡」을 남긴 작가는 누구인가?

1. 북카치오
2. 몰리에르
3. 단테

문제4

「말테의 수기」는 프랑스 파리에 온 덴마크 출신의 귀족청년 말테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수기형식의

소설이다. 이 작품을 쓴 작가는 누구인가?

1. 릴케
2. 니체
3. 토마스 만

출제 · 홍윤기

제36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모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6호(2월20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136통, 이중 정답은 103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자로부터 한달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1. 佛國寺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로 알려진 「無垢淨光陀羅尼經」(서기 704년경)은 1966년 10월 14일 불국사

경내의 석가탑 토대에서 발견되었다.

2. ② 「東醫寶鑑」

조선조 명의 허준이 편찬한 의서 「동의보감」은 동양에서 가장 우수한 의학서 중 하나로 꼽힌다. 허준이 1597년 편저에 착수해서 1610년에 완성, 1613년에 간행한 이 의서는 25권 25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3. ① 「카라마조프의 형제」

도스토예프스키의 최후의 대작 「카라마조프」는 미완성 작품이기도 하다.

4. ② 의학

체홉, 노신, 몸모두 학생시절 의학도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당첨자

- 류연경(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2동 225-193 1/1)
- 김진영(인천시 북구 계산동 계산고등학교)
- 김호섭(전북 이리시 모현1가 13-14 8)
- 남미희(부산시 사하구 하안동 487-26 개나리 APT A동 103호)
- 김정현(충남 대천시 가양1동 295-14)